

행복한 책 읽기

행복한 책 읽기- 허균 '옛 그림을 보는 법' <둘배개 권>

불후의 신품(神品)인가, 일천한 졸작인가를 가려내는 이는 화가가 아니라 감상자이다. 옛 그림에 대한 접근이라 해봐야 'TV진품명품' 같은 데서 보듯이 금전적 가치로만 환산되기 일췌인 현실에서, 결작을 가능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옛 그림을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이때의 안목이란, 그림의 곁에 드러난 가형(假形)이 아닌, 숨여있어 보이지 않는 진성(眞性)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말한다.

우리 조상이 누구를 흠모하고 무엇을 꿈꾸었느냐를 알고 싶다면 옛 그림을 들여다보시라. 선인들이 알고 있는 것, 생각한 것, 보고 싶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있다. 묵색의 농담(濃淡), 필압의 경중, 자획의 태세(太細)와 윤갈(潤渴)이 눈앞에 어른거리지만

었다. 아들을 낳아 가문을 잇고 벼슬길에 나아가 성군을 섬기는 것이 최상의 덕목이었던 만큼 시화를 통해 이를 표현하고 전수하려 했다. 선인들은 앞선 문물을 숭상하고 선대의 사상을 표본으로 받드는 상고주의를 그림에 담았다. 귀감이 되는 인물과 일화를 기록하려 애쓰다보니, 중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데도 주자가 살던 무이구곡을 떠올렸고 동정호의 소상팔경을 상상했다. 저자가 허균이라니, 우리가 의

보이는 것에 담긴, 보이지 않는 의미

그것만으로 어렵었다. 옛 그림 속에는 도도히 흐르는 역사가 있다. 선인들이 바라본 자연, 그들의 숨결과 흔적이 배어 있다.

히 알고 있는 광해군 때 '홍길동전'의 허균이 아니다. 전통미술전문가인 저자는 옛 그림 속에 담긴 의미와 상징, 선인들의 사상을 알아내고 선비들이 꿈꾸었던 세상과 선조들의 문화에 가까이 다가갔다.

매화를 통해 인고와 수절을, 난초에는 문인의 품격과 고졸한 정신세계를 드러냈다. 선비의 지조와 고고한 기품이 국화에 묻어 있고, 대나무를 그려 군왕의 덕망을 드높였다. 이름을 날리고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기며 자신을 감추는 은일을 그렸다.

시서화 일체의 나라가 조선이다. 시와 서는 서로 뗄 수 없으며 시서를 통해야만 그림에 이를 수 있다. 추사(秋史)의 문자향서권기(文字香書卷氣)는 겹겹에 취한 고담준문의 허세를 꾸짖고 그 안에 진성을 알아내려 한 영혼의 울림이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 탄탄한 세상세파에 타협하지 않는 겨울소나무의 기개를, 추사의 '세한도'에서 배울 수 있다.

석류와 포도에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연밥을 새가 쪼아 먹는 것은 남아 임태의 소망이, 고양이와 나비를 통해 무병장수를, 한 쌍의 물고기가 서로 마주보는 모습을 통해 부부화합의 의미를 담았다.

고단한 일상에 위로가 필요할 때 옛 그림을 찾는다. 보이는 그림에 담긴, 보이지 않는 의미를 음미하는 순간이나마, 시름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옛 그림을 보는 것은 마음을 다독이는 일이다.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소설·동화 2023편 응모

문학은 삶 위로하는 '오아시스'... 예비 문인들 늘어

문학은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인지 모른다. 삶이 힘들수록 문학적 상상력으로 삶의 위안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2014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최대 응모 기록은 이 같은 사실을 여실히 방증하는 것으로 저변에 예비 문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공모가 마감결과 시, 소설, 동화 등 3개 부문에 모두 2023편이 응모, 역대 광주일보 신춘문예 사상 최대 응모 기록을 세웠다. 시 부문의 경우 모두 1585편이 응모했고 소설과 동화 부문은 각각 273편, 165편으로 집계됐다.

연령층 넓어지고 해외에서도 응모

일상부터 사회문제까지 주제 다양

작품의 문학 위기는 역설적으로 많은 문정들로 하여금 문학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 면이 없지 않다. '문학만이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다'는 지극히 순수한 열정으로 무장한 이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사실 문학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 문학의 주 원천인 서사와 감성이 모든 문화의 원천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본 논리에 휘둘린 나머지 오래 전에 변방으로 밀린 탓이다.

그러나 이번 신춘문예 공모는 이 같은 문학의 위기를 떨쳐버리게 한다. 작품 수도 대폭 늘었지만 연령층과 지역 면에서도 다양하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80대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응모자층이 넓어졌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에서도 원고를 보내올 만큼 신춘문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또한 직접 방문을 해 응모를 한 이들도 적지 않았고 미국에서 정성껏 국제우편으로 보내 이도 있었다. 원고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쓴



광주일보 문화부 문학담당 기자 등이 2014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응모작들을 분류하고 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사상 가장 많은 2023편이 응모됐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원고도 많았고, 서류 형식으로 꼼꼼하게 철을 해서 보낸 원고도 눈에 띄었다. 소재에 있어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응모작들은 대부분 소소한 일상을 다루면서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하듯 고통스런 삶에 초점을 뒀다. 문학적 상상력으로 각박한 세대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소설에서는 소용 부재, 가족 간 갈등, 성폭력 등 사회적 문제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실직과 사채 등 경제적인 어려움과 맞물린 문제와 백수 생활을 전전해야 하는 '부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서사화한 작품도 적지 않았다.

공모 부문 중 가장 많은 수적 증가를 보인 시 분야 역시 실직이나 삶의 애환을 노래한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에게 모성과 자연에 찬

은 어려운 현실을 견디게 하는 원초적인 기제로, 상당수의 응모작들이 어머니로 대변되는 고향의 정서를 묘사했다.

동화는 장르 특성상 응모자의 연령층이 매우 넓었다. 10대의 응모자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동심의 눈으로 결손 가족, 다문화 가정, 왕따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러나 역대 최대의 응모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틀에 박히거나 정제되지 않은 작품들이 눈에 띄었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신선한탄이나 신변잡기에 머물린 작품도 발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신춘문예가 지향하는 개성적인 글쓰기보다는 일부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모방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정치적 이유 소설 연재 거부

'현대문학' 관련 문인에 사과

정치적 이유로 작가의 소설 연재를 거부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월간 문예지 '현대문학'이 관련 문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또 이 문예지의 양속진 주간과 편집자문위원(이재홍, 이남호, 김희영, 최승호)도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현대문학'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현대문학은 비난과 오해의 여지가 있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것이 물고 온 파장으로 문인들에게 큰 심리를 끼치게 되었다"며 "특히 이 일과 직접 관련된 문인들이 받았을 고통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원로 작가 이재하 씨는 '현대문학'으로부터 정치적 이유로 연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1월부터 장편소설 '일어나라, 삼손'을 연재하기로 하면서 1회분 '박정희 유신' 등을 언급했는데 사흘 만에 거절당했다고 설명해 논란이 일었다. 또 소설가 서정인, 정찬 등의 작품도 비슷한 이유로 연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뉴스

'멕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 극단 DIC, 28일까지 공연일변지

올해는 지역 연극계에서 다양한 고전 작품을 만날 수 있어 반갑다.

극단 DIC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멕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를 공연한다. 28일까지 수~토요일 오후 8시 소극장 공연 일변지. 무대 위에는 멕베스 장군의 머리가 장대에 걸려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놀라는 멕베스의 모습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멕베스와 뱀고우

장군은 마녀의 예언을 듣게 되고, 두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정문희씨가 각색과 연출을 맡았으며 문진희·이현숙·김장준·송민준씨 가 출연한다. 연출가 정씨는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썼던 멕베스를 통해 명예, 행복, 행복, 돈, 일에 끝없이 집착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7008. /*김미연기자mekim@kwangju.co.kr



원룸전문(전대1분)

- ★전대 상대 농대1분★
 - 룸11개(1층 상가) • 월수익 420만, 준공완료
 -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용 1억2천)
- ★전대 정문 1분★
 - 룸18개(만실) • 월수익 600만
 -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용 1억2천)
- ★전대상대2분 용봉지구★
 -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 월수익 850만 • 매가 12억(용 4억)
- ★화정동 APT 입구 코너★
 - 1층 상가, 2층상가, 3층룸9개, 4층룸9개
 - 월수익 1300만 보3억 • 매가 19억
- ★남구 백운동 ★
 - 룸15개(주택1개) • 매가 8억8천
- ★전대정문 1분 ★
 - 룸15개(만실) • 매가 6억3천
 - (보증금 4천 월510, 용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호남대학교, 어등산골프장,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010-2475-0933
010-5166-0013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랑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지 4,900㎡
건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사찰용지에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0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투룸

14개를 ▶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스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